

Weekly vol 26. 2023. 3. 13

Manager Note

Chief Strategist 신중호

02 3779 8447
jh.shin@ebestsec.co.kr



Point 1. 주간 시황 및 전망

Point 2. 이베스트 Market Monitoring

Point 3. 이베스트 리서치 Top Picks

포트폴리오 김윤정

02 3779 8753
yunjeong.kim@ebestsec.co.kr



주간 시황 및 전망

- SVB, 은행의 카나리아가 아닐 것. FDIC를 비롯 당국의 빠른 대처와 민간과 금융권 체력 강건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확산 - 육계, 동물 제외진단, 백신
- 이베스트 Top Picks: 주간 평균수익률 코스피 수익률 -0.26%p 언더퍼폼

SVB 파산과 미국 은행권 체력

- ▶ 전주 연준의장의 매파 발언과 미국 은행권 대출상각 우려(실버게이트 파산 및 SVB 파이낸셜 폐쇄 여파)로 주가 하방압력. 다만, 시스템 리스크 전이 우려로 인한 연준 스탠스 변화 가능성 대두. 때마침 발표된 미국의 고용은 표면적으로는 서프라이즈이지만, 시간당평균 임금 증가율 예상치 하회. SVB 파산에 대처하는 당국의 빠른 움직임과 금리 인상 사이클을 버틸 수 있는 은행권 체력에 주목
- ▶ SBV, 실리콘 밸리 뱅크 파산이라는 암초 발생. 공교롭게도 파월 연준의장의 상하원 의회 증언에서의 매파적 발언 이후 돌출된 이벤트. 이로 인해 3월 FOMC에서의 50bp 금리인상 확률은 급감
-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라는 타이틀과 미국 내 16 번째로 큰 은행이라는 점을 부각한 언론을 보고 있으면, 08년 금융위기 재림이라는 공포를 생각할 수도 있음. 그런 심리차단을 위해 당국의 발빠른 대응 출현. 긴축 이후 은행권의 미실현 손실 증가 등을 이유로 전염효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SVB 폐쇄. 동시에 DINB(샌타클라라 국립예금보호은행) 설립, SVB의 모든 예금자보호예금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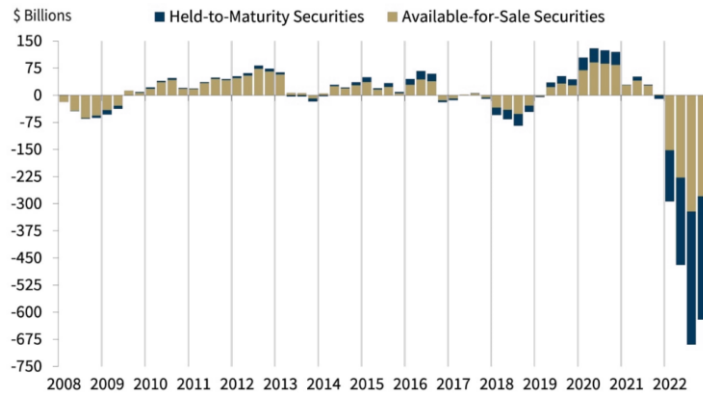
표1 SVB 자산 기준 16번째 은행

미국 은행 자산 순위 (2022년 12월 말 기준)	Consol Assets (Mil \$)	상업은행 총자산대비 (%)
JPMorgan Chase	3,201,942	13.99
Bank of America	2,418,508	10.57
CitiBank	1,766,752	7.72
Wells Fargo	1,717,531	7.51
U.S.Bank	585,136	2.56
PNC Bank	552,307	2.41
Truist Bank	546,228	2.39
Goldman Sachs	486,967	2.13
Capital One	453,313	1.98
TD Bank	386,799	1.69
Bank of NY Mellon	324,646	1.42
State Street Bank and Trust	298,020	1.30
Citizen bank	226,402	0.99
First Republic Bank	212,639	0.93
Morgan Stanley Private bank	209,664	0.92
Silicon Valley Bank	209,026	0.91
Fifth Third Bank	206,289	0.90
Morgan Stanley bank	201,363	0.88
M&T Bank	200,263	0.88
KeyBank	187,590	0.82

자료: FRB,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은행권의 미실현 손실과 전염에 대한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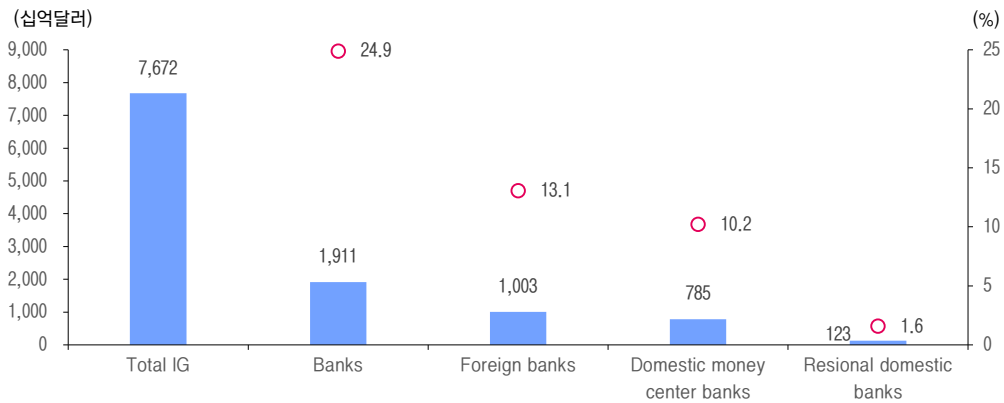
Unrealized Gains (Losses) on Investment Securities



자료: FD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당국의 발빠른 대응과 함께 미국 신용시장의 체력을 보면 금융위기와 같은 Credit crunch 가능성은 희박. 은행권 신용경색에 의한 자금공여 시장에서의 경색은 제한적일 것. 전주 후반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인용하면, 1) 지방은행이 투자등급 회사채 시장에서의 비중은 1.6%에 불과 2) 지방은행의 점유율이 낮고 상당히 분산되어 있음 3)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감독기관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와 유동성 위험은 희박함(이상 골드만삭스 인용). 오히려 긴축의 우려가 줄어들고 당국의 신용위기 차단이라는 정책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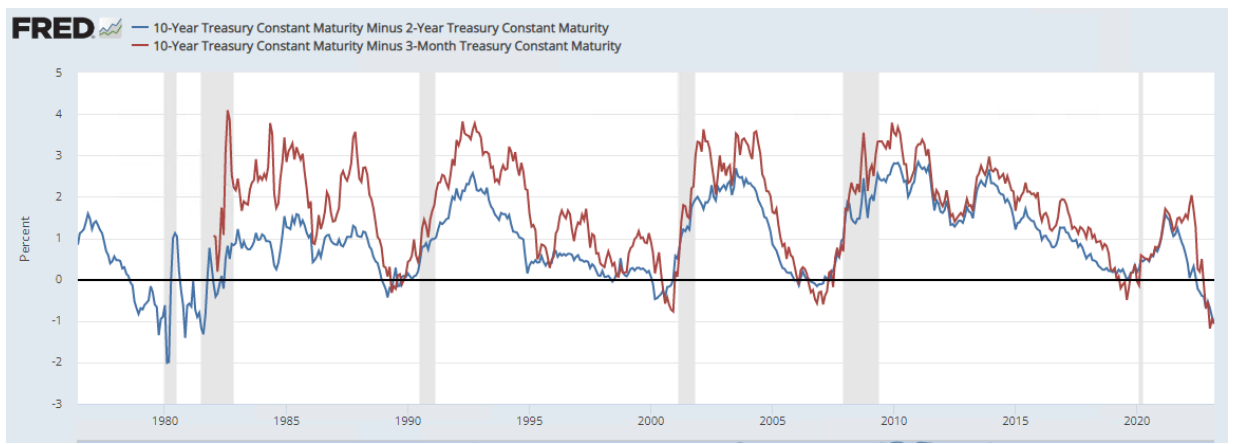
그림2 미국 회사채 시장 규모와 지방은행 보유 비중



자료: iBoxx,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그림에도 여전히 투자자들은 SVB 사태처럼 강한 긴축의 부작용과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의한 리세션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음. 예외 없이 경기침체 시그널로 작동해왔다는 과거의 경험 때문. 그러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체크해야 할 것은 '경기침체 정도'에 대한 판단
- ▶ 특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경기침체 발생은 자금대여 측면에선 은행들의 역마진과 대출성장률 둔화, 차주 입장에선 금리비용 상승과 연체율 증가에 의한 대출회수 과정임. 이로 인한 경제 전반의 신용창출 하락과 경제성장률 급락이 경기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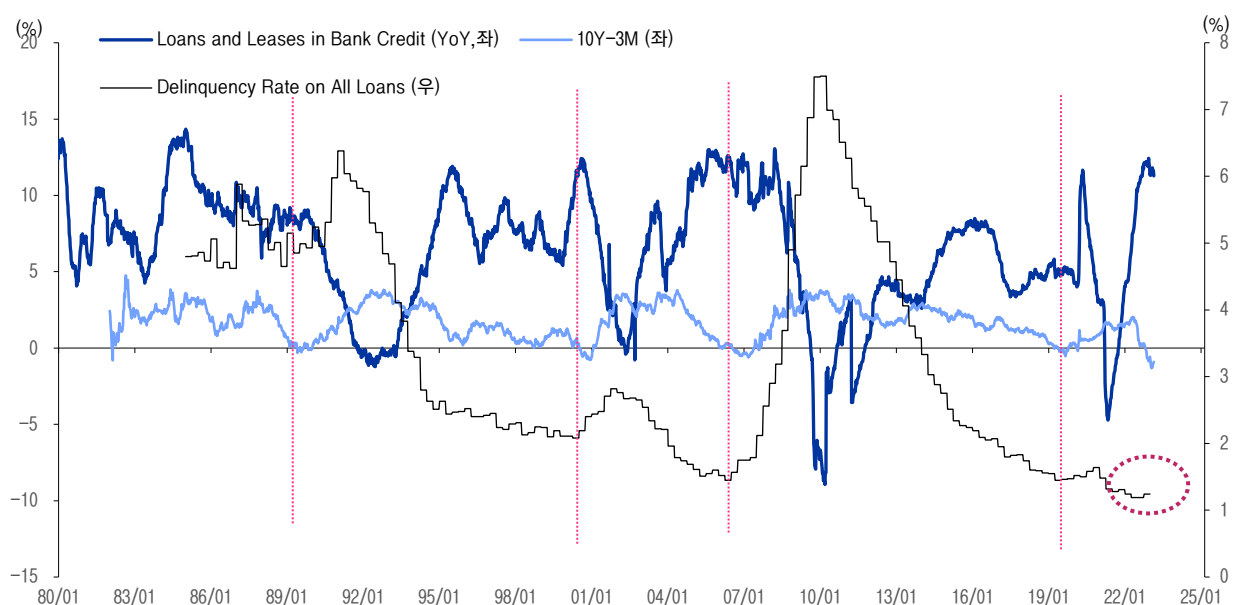
그림3 일드커브 역전은 반드시 리세션을 부른다?



자료: FR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여전히 미국 신용시장은 빌려줄 여력과 빌릴 체력이 건전. 특히 미국 가계의 전체 대출 연체율이 1.24%에 불과(장기평균 3.3%). 대출 성장률 역시 10%를 유지하면서 자금순환에 타격이 없는 상태. 장단기금리차 역전 후 대출증가를 둔화와 연체율 증가의 악순환이 리세션의 필요조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리세션의 시그널이 작동하지는 않고 있음
- ▶ 물론 당장은 괜찮지만,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리세션과 SVB 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체력인지, 어디를 점검해야 할까? 바로 미국 가계의 고용과 부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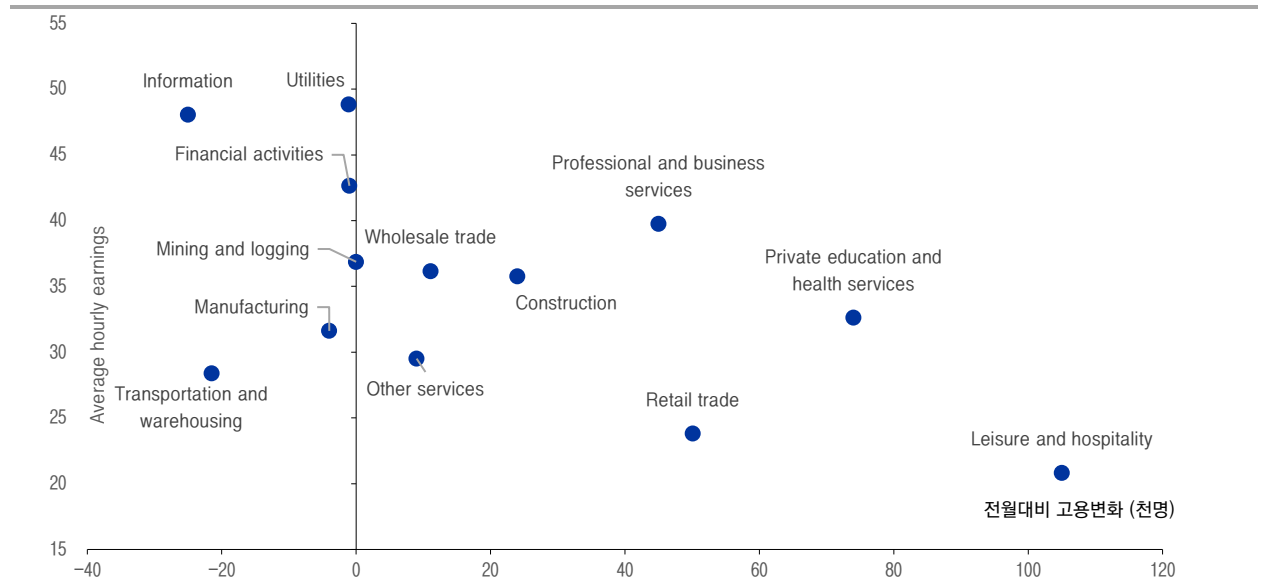
그림4 낮은 연체율(노동공급 쇼티지의 고용시장과 낮은 DSR)과 은행권 체력(높은 현금 비중과 낮은 예금베타)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금요일 SVB 파산뉴스에 묻히긴 했지만, 2 월 고용지표도 놀랄만한 뉴스를 전해 줌. 표면적으로는 컨센서스 205K 를 뛰어넘는 311K. 그러나 고용지표 발표 직후 시장은 되려 급등세를 보임. 이유는 바로 시간당임금증가율의 둔화. 예상치인 0.4%((MoM)보다 낮은 0.2%로 발표. 전월의 0.3%보다 더 둔화되었기 때문.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월 62.4%에서 62.5%로 더 늘어났음에도 고용비용은 축소된 것
- ▶ 이유는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증대와 IT 와 금융 등 고임금 노동자의 축소 때문. 비농업민간고용의 26.5 만명의 시간당평균임금은 33.09 달러. 2 월 고용증대의 39%(10.5 만명)를 차지하는 레저/숙박의 시간당평균임금은 20.83 달러. 18.9%(5 만명)의 유통(Retail trade)는 23.81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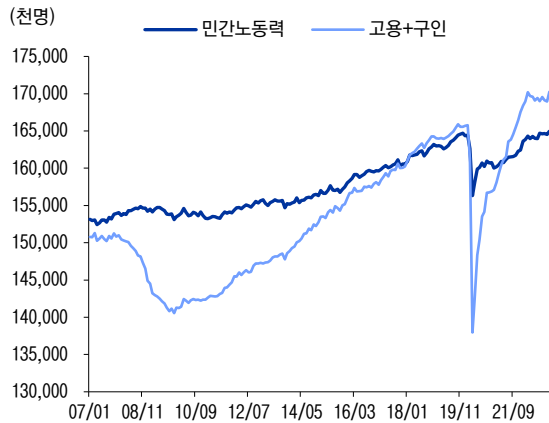
그림5 2 월 고용시장의 특징,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고임금 노동자의 감소



자료: BL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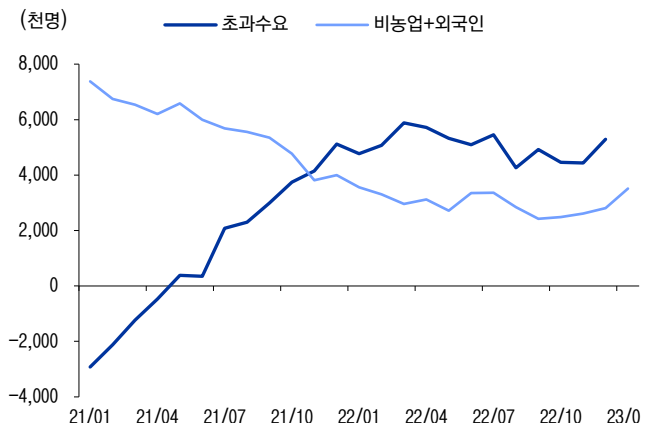
- ▶ 타이트한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수요와 공급을 판단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총고용과 구인의 합과 민간노동력을 측정. 두 지수의 차는 2022 년 11 월 444 만 명, 12 월 529 만 명 수준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공급축소는 2018 년 이후 이어져 온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비노동인구의 증가가 그 배경. 2022 년 기준 외국인 고용은 2015 년 선형추세 대비 206 만 명 감소해 있고, 비노동인구는 75 만 명 증가. 즉 529 만 명의 추가 수요 중 281 만 명은 노동 공급 요인. 2023 년 1 월 기준으로 비노동인구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한 부족분은 351 만 명으로 공급요인은 좀 더 악화됨
- ▶ 이런 구조적인 노동시장에서의 공급부족 현상을 감안, 파월 연준의장의 고용관련 스탠스도 '실업률 상승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난주 상하원 의회에서 증언. 'We actually don't think we need to see a sharp or an enormous increase.'

그림6 민간노동력과 고용+구인



자료: FR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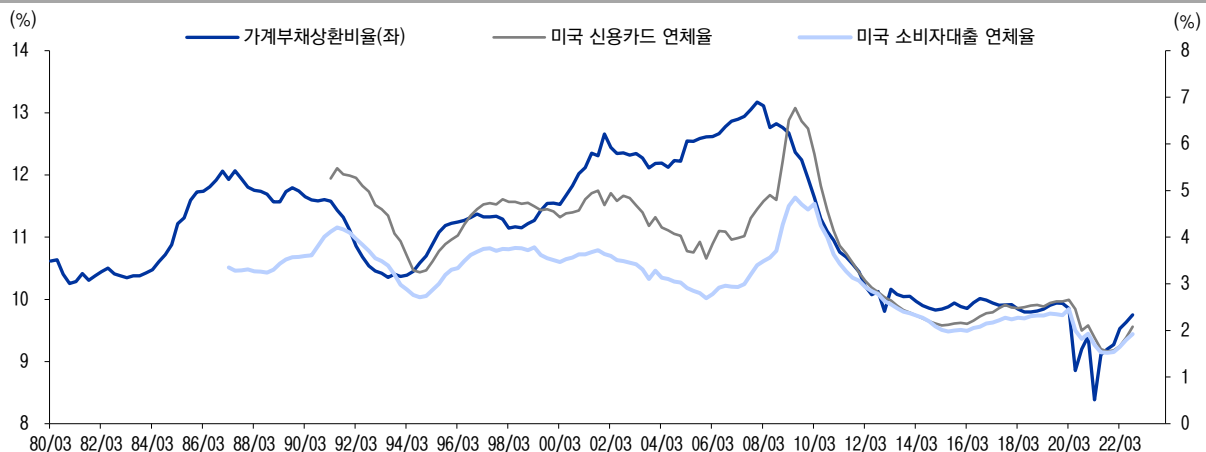
그림7 노동시장 공급 쇼티지



자료: FR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연준의 긴축으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 논쟁이 있었지만, 미국은 No landing 가능성도 점칠 만큼 강건.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강건함은 미국 신용시장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요인(낮은 대출연체율과 소비의 지속가능성)이 될 수 있음. 과도한 긴축으로 가계 소비체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DSR(3Q22, 9.75%)은 과거 레벨의 하단에 머물고 있음. 실질 부채비용 부담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견고함은 신용카드를 비롯한 소비자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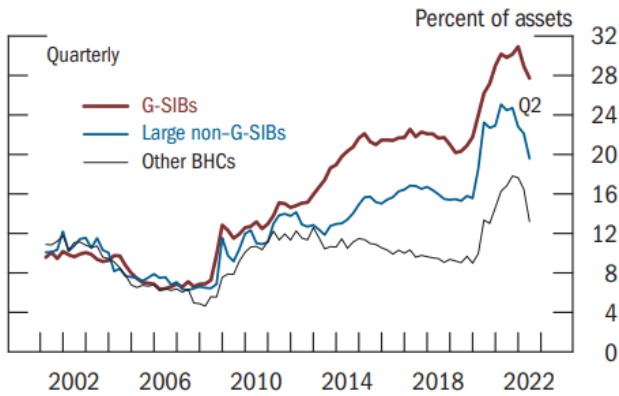
그림8 DSR로 보면 긴축으로 부채부담이 높아졌다기 보다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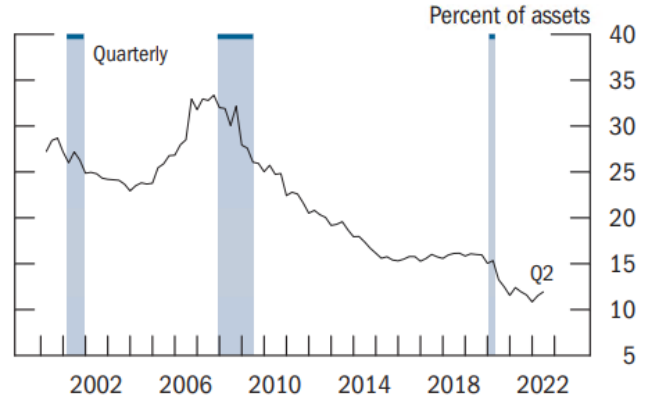
- ▶ 자금공여자 입장에서의 여력도 충분. 환매리스크를 체크해볼 수 있는 유동자산 비율, 금융위기 이전 4%를 밀돌았던 것에서 대형금융기관 기준 24% 수준으로 높아짐. 펀드런 등 단기 유동성 리스크 대비 충분한 완충장치가 있다는 것. 특히, 1년 미만의 Deposits(연기금 및 MMF 등)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이 금융위기 직전 35% 수준에서 10%까지 하락. 단기에금을 통한 장기자산 투자와 이에 따른 만기불일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23년 2월 현재 미국 상업은행들의 예대율은 68%, 코로나 직전 75%. 현금성 자산은 176조달러, 총자산 229조달러 대비 13.4%

그림9 미 금융기관의 유동성 보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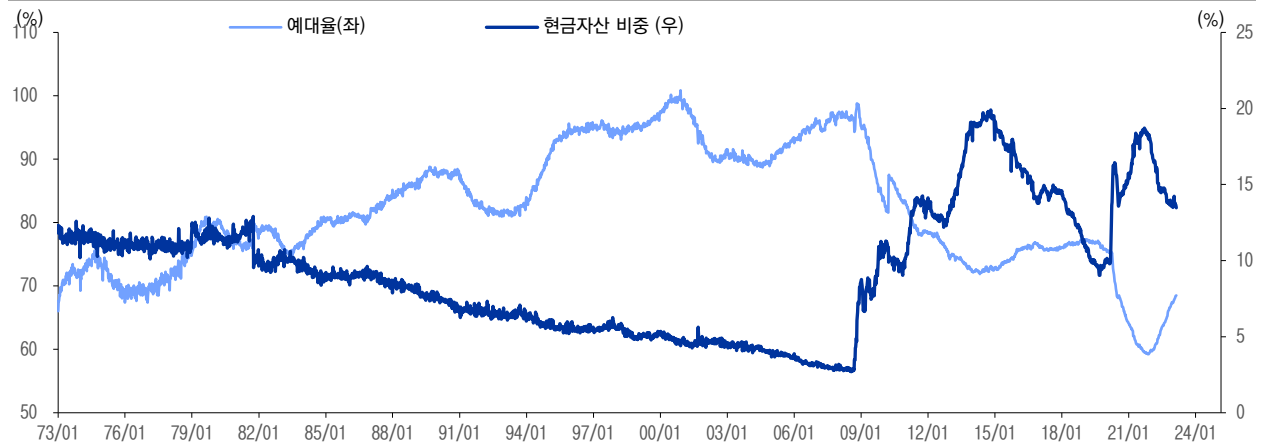
자료: FRB,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Short-term wholesale funding of banks



자료: FRB,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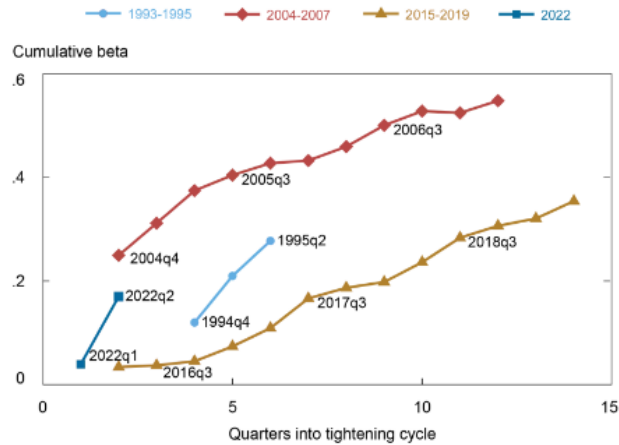
그림11 미국 상업은행들의 낮은 예대율(68%)과 높은 현금자산(총자산대비 13.4%)



자료: FRB,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여전히 낮은 예대율과 높은 현금자산으로 인해 외부충격을 버틸 체력이 있다는 것. 또한 이런 고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금베타(deposit beta, 예금금리로 전가되는 연방기금금리의 변화)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 긴축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상승과 마진압박이 크지 않음
- ▶ 뉴욕연준의 최근 연구(How Do Deposit Rates Respond to Monetary Policy?_Alena Kang-Landsberg and Matthew Plosser_2022.11.21)보면 예금 베타는 2004년 금리인상 사이클에서는 누적 베타가 60%에 근접한 정점에 도달한 반면, 금융 위기 이후 금리인상 사이클에서는 베타가 거의 0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40%를 넘지 않았음. 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을 꺼리는 한 가지 이유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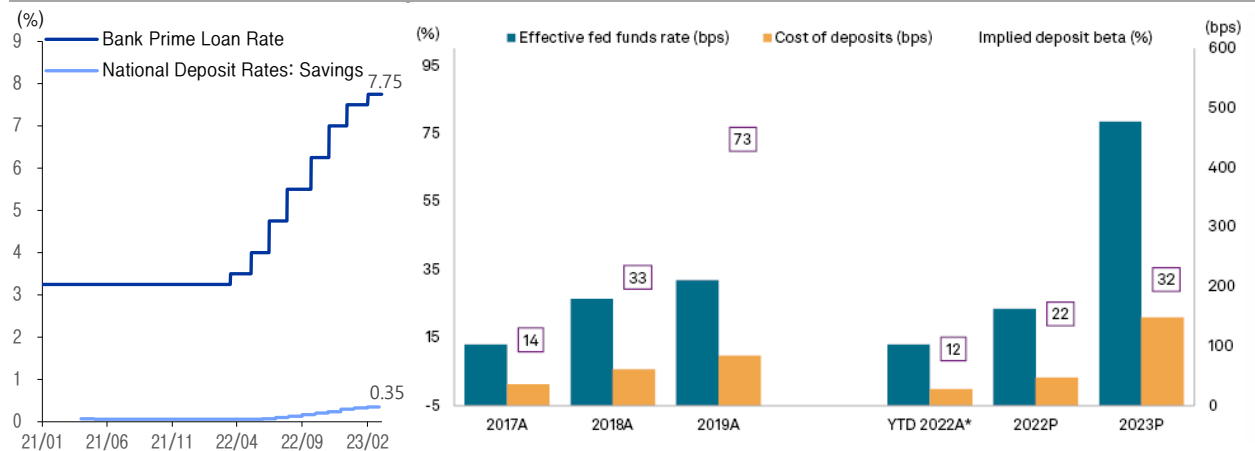
그림12 긴축 사이클에 따른 누적 예금베타



자료: 뉴욕연준,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 실제 이번 긴축사이클에서 대출금리(Bank Prime Loan)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7.75%까지 인상. 그러나 예금금리(National Deposit rate)는 0.35%에 불과. Deposit beta 즉, 기준금리 1% 인상대비 각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변화율이 낮음. 2022 년말 현재 예금베타는 22%, 23 년에는 3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S&P Global). EPFR 5.50% 가정 시 2.11%의 예금금리 추정. 은행들에게 부담되는 예금금리 이자가 아닌 것

그림13 S&P Global이 추정하는 23년 예금베타는 32%까지 상승



자료: S&P Global,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해외의 사람 감염 사례에도 유의

- ▶ 철새 이동철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의 확산과 가금류에 발병시 피해가 큰 고병원성(Highly Pathogenic) AI 에 대한 경계 확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미주지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HPAI 확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치에 의하면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건수는 6,356 건,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5,860 만 마리에 달하며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 다만, 국내에서는 일부 가금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 ▶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 및 사람에 대한 전파에도 유의. 지난 1 월 에콰도르에서 HPAI A(H5)에 감염된 어린이의 사례 1 건이 보고된 데 이어, 2 월 캄보디아에서도 한 어린이가 HPAI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과, 그의 아버지도 같은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보고됨. WHO 는 2003 년 이후 HPAI 의 인체감염 사례가 누적 868 건이며, 이 중 사망은 457 건으로 집계. 사람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발생 건에 대해서는 53%의 치사율을 기록
- ▶ 통상 HPAI 사례 발생시 가금류에 대한 대량 살처분 조치를 취함(미국, 국내 등). 그러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러스의 장기화와 사람에게로의 확산시 또 다른 팬데믹으로 이어질 위험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등 방안도 고려. 다만 미 닭고기 수출업체에서는 백신 접종시 조류독감 감염 여부가 불확실해지므로 수출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하는 입장
- ▶ HPAI 확산은 1 차적으로 육계 및 계란류의 공급 문제를 야기하므로 가금농장과 식품가공기업 실적에 영향. 하림(136480), 동우푸드(088910) 등 육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HPAI 확산 초기에 상승하는 편으로, 육계 수요 타격은 비교적 제한적인 가운데 공급 부족에 인한 출하가격 급등에 의한 것. 다만, 식품가공 및 유통업체들에는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 ▶ 아직은 정책 검토 단계에 있기는 하나 HPAI 에 대한 진단 및 백신 적용이 결정될 경우 수혜가 가능한 동물 제외진단, 백신 기업에도 관심. HPAI 제외진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인트론바이오(048530) 등이며, HPAI 백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녹십자(006280), 코미팜(041960) 등

그림14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조류 인플루엔자 현황 요약

Wild Birds	Poultry	Humans
Wild Birds Detected	Poultry Affected	Reported Human Cases in the U.S.
6,356 as of 3/8/2023 Full Report >	58,602,281 as of 3/8/2023 Full Report >	1 as of 04/28/2022 Full Report >
Jurisdictions with Bird Flu in Wild Birds	States with Poultry Outbreaks	States with Reported Case(s)
50	47	1

자료: CD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수준별 단계 분류

구분	세계보건기구(WHO) 분류	국내 질병관리청 분류	
1단계	- 인체 감염 바이러스 미발생 - 인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동물 내 존재 가능 - 존재하더라도 인체 감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2단계	- 인체 감염 바이러스 미발생 -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 - 인체 감염의 위험성 증가		
3단계	- 변종 바이러스로 인체 감염 발생 - 그러나 사람간 전파는 미발생 - 또는 극히 드문 경우에 친밀한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 발생		
4단계	- 소규모 사람간 전파 - 전파는 특정 지역에 국한 - 바이러스가 아직 충분히 인간에 적응하기 이전 단계	주의보 단계	사람간 전파 사례의 국외 발생
5단계	- 사람간 전파 확산 - 여전히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고 전파 경로 제한적 - 바이러스는 보다 인간에 적응하여 변이	경보 단계	사람간 전파 사례의 국내 유입
6단계 (대유행)	- 일반 대중간 지속적 전파 - 전파 경로 확산	비상 단계	국내 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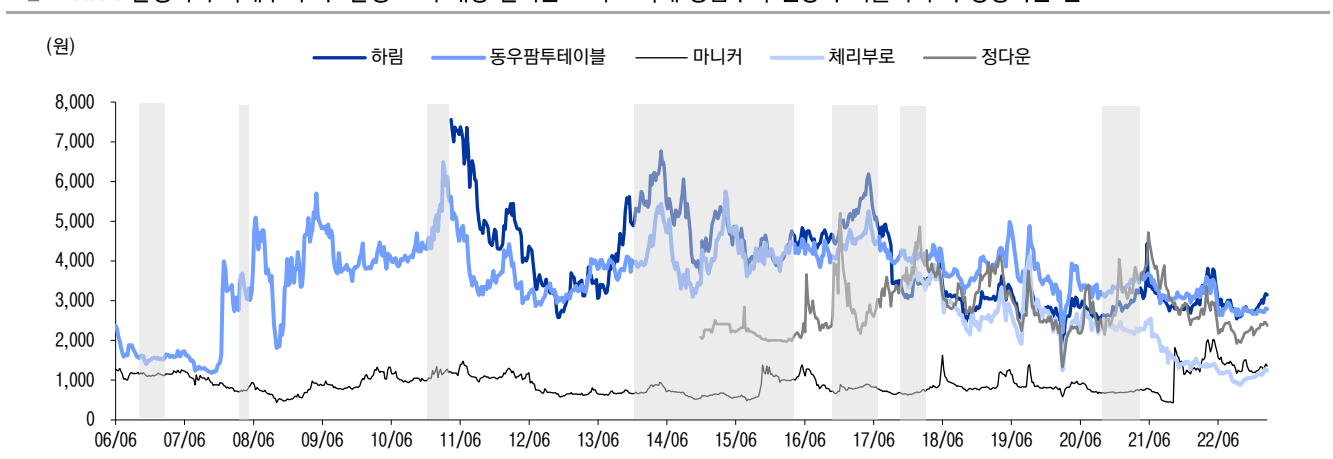
자료: WHO, 질병관리청, LG경영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역대 HPAI 국내 발생 및 피해액 규모

발생시기	바이러스 종류	지속기간(일)	살처분 두수(천)	피해 규모(억원)
2003.12.10 ~ 2004.03.20	Clade 2.5 / H5N1	102	5,285	874
2006.11.22 ~ 2007.03.06	Clade 2.2 / H5N1	104	2,800	339
2008.04.01 ~ 2008.05.12	Clade 2.3.2 / H5N1	42	10,104	1817
2010.12.29 ~ 2011.05.16	Clade 2.3.2.1 / H5N1	139	6,473	807
2014.01.16 ~ 2016.04.05	Clade 2.3.4.4 / H5N8	811	19,384	2,381
2016.10.28 ~ 2017.06.19	Clade 2.3.4.4 / H5N6, H5N8	234	38,076	3,621
2017.11.17 ~ 2018.03.17	Clade 2.3.4.4 / H5N6	120	6,539	827
2020.10.21 ~ 2021.03.30	Clade 2.3.4.4 / H5N8	161	30,000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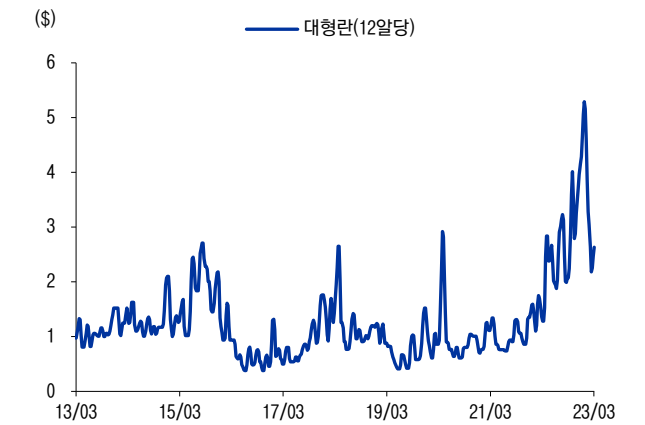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권정훈(경북대학교, 2022) 재인용,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HPAI 발생시기 육계주 주가: 발생 초기 대량 살처분 조치로 육계 공급부족 현상과 더불어 주가 상승하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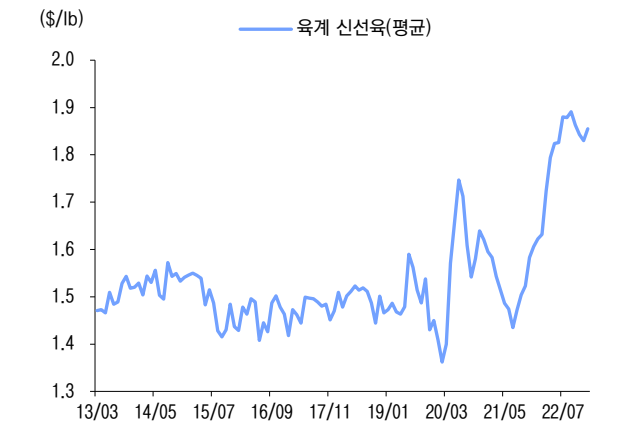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미국 계란 가격 추이



자료: Refinitiv,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미국 닭고기 가격 추이



자료: CEI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인트론바이오 주요 품목 및 매출비중 (3Q22 기준)

사업구분	매출유형	품목	구체적 용도	주요상표 등	매출비중(%)
분자진단	제품	COVID19, AI, VRE, STI 등	감염성 질환 진단제품	LilliF, Maxime 등	74.4
동물용 항생제대체제	제품	PML100 등	박테리오파지 기반의 동물용 항생제대체제	N-Rephasin PML100 등	14.8
바이오신약	제품/로열티	다수 신약 파이프라인		N-Rephasin SAL200/BAL200 등	10.8

자료: 인트론바이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5 코미팜 HPAI 백신 개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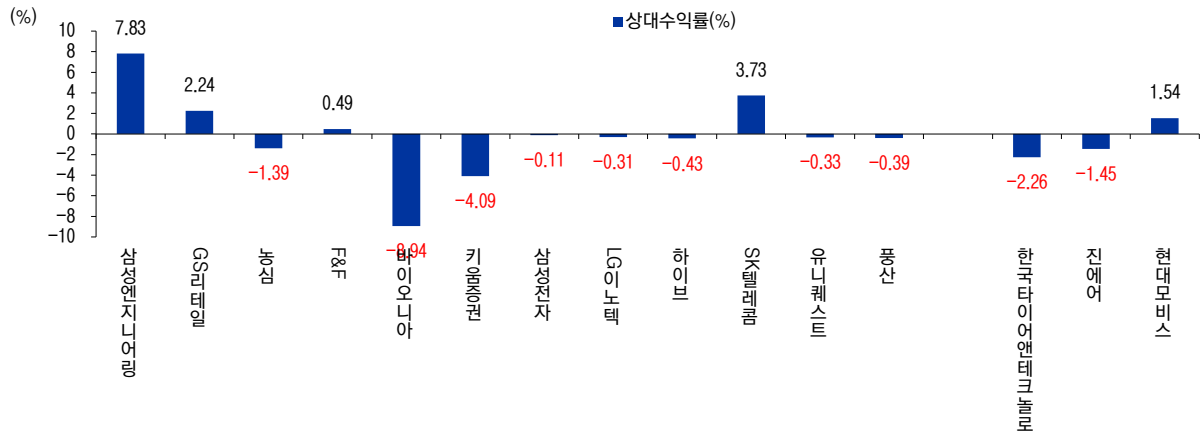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적응증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
작용기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에 대한 고 역가 HI 항체 생성
제품 특성	곤충세포 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에 유입 가능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항원 2종에 (ES2(Clade 2.3.4.4C), KA435(Clade 2.3.2.1C)) 대한 HA 단백질을 바이러스 유사 입체의 (VLP, Virus like particle) 형태로 발현하여 백신 항원으로 사용하였음
진행경과	제품 인허가 절차 진행 중 - 개발 제품명 : 프로백 H5-에이아이엔케이 - 진행경과 : 수출전용 허가 승인 (21.05.28일) 해외현지제품등록_2건(22.06월) 수출예정국가의 백신 샘플발송(22.07월)
향후계획	논문발표 준비 중
경쟁제품	Volvac B.E.S.T 외 (국내 미출시 제품)
관련논문	특허출원 (10-2021-0011445,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사입자 및 이를 포함하는 백신 조성물)
시장규모	국내 백신 시장 없음,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항원뱅크 비축사업 (25억원/2년)
기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산업체공동연구 과제

자료: 코미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베스트 리서치 Top Pi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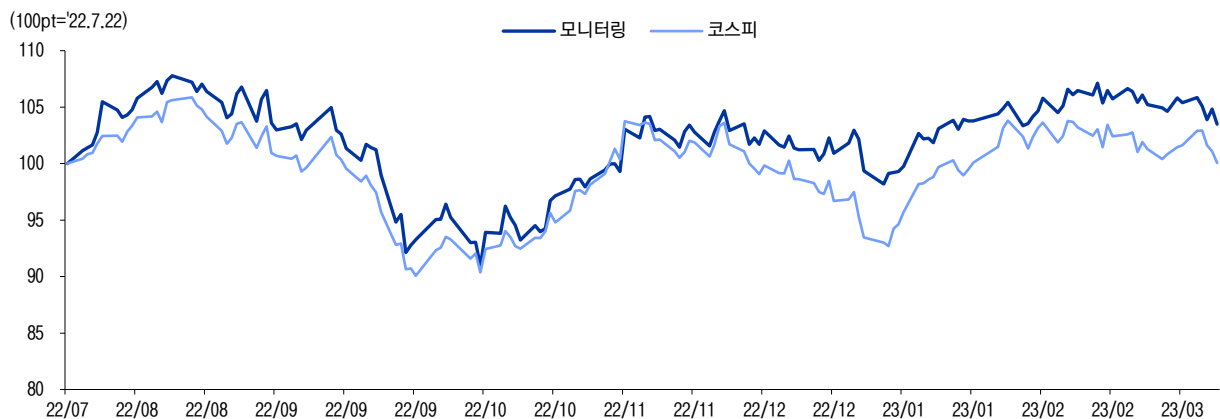
- ▶ 이베스트 섹터별 탑픽의 주간 평균수익률은 -1.80%, 코스피(주간 -1.54%) 대비 -0.26%p 언더퍼폼
누적 수익률은 3.51%로 동기간 코스피 수익률(0.06%) 대비 +3.45%p 아웃퍼폼
- ▶ 모니터링 종목 내 주간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삼성엔지니어링**(주간 +6.28%)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상반기 중동지역 산유국들에 대한 대형 화공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주가 상승, 52주 신고가 기록
- ▶ 이번주 탑픽 종목 변동:
해당사항 없음

그림18 지난 주 모니터링 종목 상대수익률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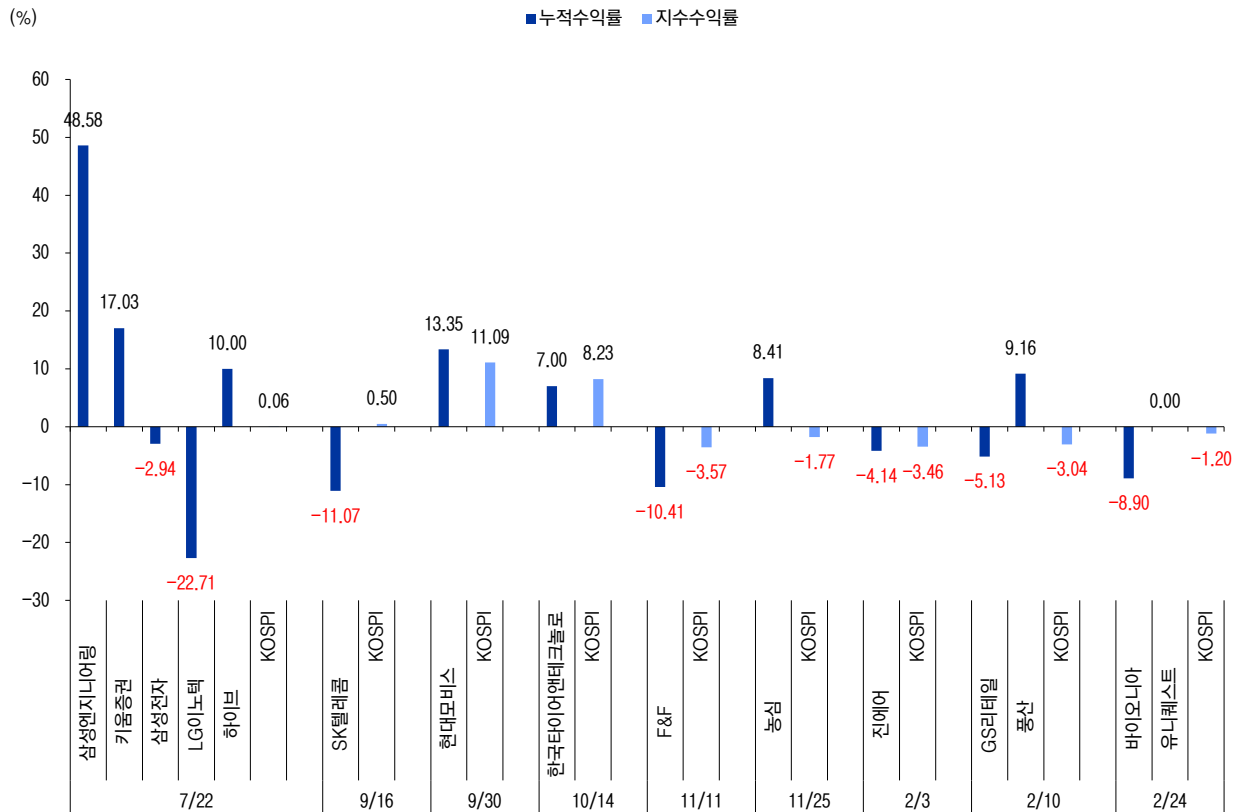
그림19 모니터링 종목 누적 주가수익률 추이



주: 동일가중 포트폴리오로 가정해 수익률 산정. 이 때 거래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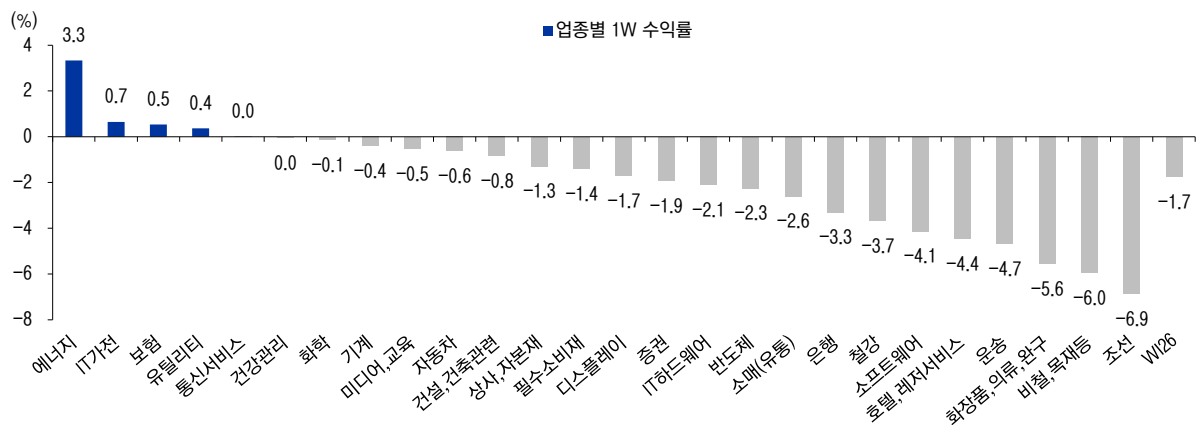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모니터링 종목 편입 일자별 누적 수익률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지난 주 업종별 수익률



자료: Fn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6 업종별 모니터링 종목 (커버리지 탑픽)

업종	코드	종목명	모니터링 기준일	시가 총액 (십억원)	주가 (원)	1W 수익률 (%)	누적 수익률 (%)	체크포인트
건설/ 건자재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2022-07-22	5,635.0	28,750	6.28	48.58	글로벌 에너지 업체, 산유국 CAPEX에 다른 업황 호조 1H23까지 가시권내 해외수주 모멘텀 상존
철강/ 비철금속	A103140	종산	2023-02-10	1,069.1	38,150	-1.93	9.16	'23 중국 리오프닝과 강력한 부동산 정책 영향,타이트한 구리정광 수급으로 구리가격 견조하게 유지됨에 따라 높은 평가 유지 전망 방산 부문 역시 한화, 현대로템 수주건으로 최소 연간 1,000억원 의 매출 증대 효과. 신동부 Metal Loss 영향 완화되고 방산부 문 외형성장이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기에 실적 회복 시점이 늦 어지는 타 종목 대비 '23 안정적인 이익 성장 기대됨
유통/ 화장품	A007070	GS리테일	2023-02-10	3,000.2	28,650	0.70	-5.13	편의점 부문 리오프닝에 따른 Q회복, 가격인상에 따른 P 회복 '22 통합 앱 출시 등 IT 개발용역비 투자에 따른 베이스 효과 런치플레이션으로 외식 대체수요 흡수, FF·HMR 고성장 긍정적 수퍼마켓 턴어라운드, 리오프닝으로 호텔 투숙률 상승, 이커머스 부문 적자 개선
음식료	A004370	농심	2022-11-25	2,116.8	348,000	-2.93	8.41	'21, '22 2년 연속 가격 인상 이례적 + 1H23 하향 안정화된 곡물가 격이 투입원가로 반영되며 가공식품 이익 스프레드 확대 예상 '21, '22 낮은 기저효과로 영업이익 상승폭 돋보일 전망. 해외매출 성장 및 미국 제2공장 가동률 목표 조기달성 긍정적
의류	A383220	F&F	2022-11-11	5,405.1	141,100	-1.05	-10.41	3Q22 시장 기대치 상회, 4Q22E 중국 출점, 광군제 효과 기대 중국 락다운 우려 불구, 2분기 연속 호실적 시현. 연초 중국 출점 매장 가이드스 800개 돌파, 2~3선 도시매장/키즈 단독매장 확장중 프리미엄 스포츠 수요는 세르지오 타키니(테니스), 테일러메이드 (골프)로 대응
제약/ 바이오	A064550	바이오니아	2023-02-24	1,201.5	46,550	-10.48	-8.90	탈모화장품 유럽 승인, 안전성 엑셀런트 등급으로 아마존 4월 출 시 + 추가임상 데이터 논문 올해 1건 게시 예정 기존 경구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대비 부작용 급감 유효성 우위 논문으로 이미 증명. 10배 증설 통해 탈모 수요 선제적 반영 다이어트 유산균 '22 매출 1,600억원(마진 10~15%) 캐시카우 확보
금융	A039490	키움증권	2022-07-22	2,504.0	95,500	-5.63	17.03	미 연준 75bp 금리인상 이후 추가 유동성 위축우려 완화 부동산 PF 등 투자자산 부실우려 낮음
반도체	A005930	삼성전자	2022-07-22	355,202.1	59,500	-1.65	-2.94	4Q22 영업외 법인세율 현실화로 법인세비용 18.8조원이 조정되면 서 Cash Flow 개선. '23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인프라 및 R&D를 제외한 Capex는 경쟁사들의 -30% YoY 대비 낮은 폭인 -6% YoY로 점유율 확대 전략을 유지
전기전자	A011070	LG이노텍	2022-07-22	6,283.6	265,500	-1.85	-22.71	정저우 공장 생산 차질로 아이핀14 흥행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출 하량이 증가하며 우려보다 완화 예상. 전략고객이 신제품 전모델에 48M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기대 되는 가운데 동사는 SCM 내 단독으로 풀디즈ום 신형 카메라 모 듈 공급을 앞두고 있어 ASP 상승 효과로 외형성장 지속 전망
엔터/ 미디어	A352820	하이브	2022-07-22	7,596.6	183,700	-1.97	10.00	BTS 공백기 시장 우려 대비 최소화(2025년), BTS 그룹 활동 없이 도 외형 성장 지속 가능(멀티레이블+tech 기반 포트폴리오 확장) 신인 데뷔팀+주력 아티스트 북미/일본 시장 중심으로 팬덤 확보 M&A, 신규사업 투자 가능한 현금 자산 보유
통신/지주	A017670	SK텔레콤	2022-09-16	10,197.6	46,600	2.19	-11.07	마케팅 경쟁 완화에도 5G 점유율 지속 상승 추가적인 주주환원 예상. 자회사 SKB 현금배당 실시 결정, 하나 금융 배당수익까지 고려시 매년 1,100억원 이상 발생 23E DPS 3,400원, Div yield 7.2%
미드/ 스몰캡	A077500	유니퀘스트	2023-02-24	287.2	10,500	-1.87	-	AI와 로봇 등의 산업에 필요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유통 솔루션 기업들 실적 수혜 가능성 자회사 A.I Matics의 Edge AI 플랫폼을 활용한 차량관제서비스 실적 개선으로 부각받을 듯

주: 누적수익률은 모니터링 기준일 이후 수익률을 의미
 자료: Fn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7 업종별 모니터링 종목 (커버리지 외)

업종	코드	종목명	모니터링 기준일	시가 총액 (십억원)	주가 (원)	1W 수익률 (%)	누적 수익률 (%)	체크포인트
에너지/ 화학	A16139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2022-10-14	4,546.2	36,700	-3.80	7.00	4Q22 실적 컨센서스에 매출액 부담 및 영업이익 상회. 시장 우려 대비 RE 성과가 견조했고 제품 믹스 개선 및 물류비, 원료비 등 비용단의 개선세. 더불어 올해도 최대 10%의 ASP 인상을 단행하며 글로벌 공급망 회복시 가격 인상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
운송	A272450	진에어	2023-02-03	845.6	16,200	-2.99	-4.14	4Q22 매출 184.6% YoY, 영업이익 흑자전환으로, 일본 리오프닝 등 국제여객 정상화 흐름 속 국내항공사 중 가장 빠른 회복세 국내 FSC가 화물 실적 우려 및 M&A 불확실성 등으로 부진한 반면 LCC의 실적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남 여객 회복과 운임비용 상승에 따른 P와 Q의 동반 성장, 유가하락으로 C 감소 등 우호적 환경
자동차	A012330	현대모비스	2022-09-30	20,412.7	216,500	-	13.35	4Q22 매출 29.1% YoY, 영업이익 24.9% YoY 증가로, 연간 매출액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 고마진 전동화 부문 매출이 사상 최대치인 9.7조원을 기록, 안정화 단계에 안착하며 믹스 개선 흐름 작년 현기차외 해외 완성차 업체 수주 46.5억달러로 2021년(25억달러) 대비 대폭 신장. 향후에도 쉐클과 협업을 통한 자율주행 역량 강화 등 ADAS 제품의 글로벌 수주경쟁력 확장 전략

주: 누적수익률은 모니터링 기준일 이후 수익률을 의미
 자료: FnGuide,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중호, 김윤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